

# “피랍 동원호 선원 전원 무사”



5일 오전 강남 동원수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동원 628호 나포 사건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 정부, 일단 안도속 대책본부 가동 상황피악 분주

정부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동원수산 선박이 납치된 것과 관련해 5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 통상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선박과 선원의 무사귀환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준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동원수산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 상황을 평가하고 무장단과의 구체적인 협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상 방안과 관련, 제628 동원호(361t)와 선원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상대로 채널을 마련했으며 동원수산 측은 현지의 부족 총장을 대리인으로 보내 무장단체와 접촉하고 있다.

동원수산 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외교통상부는 4일 밤부터 유명한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긴급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소말리아를 관할하는 주 케냐 한국대사관에 열기섭 케냐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며 유명한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외교부 본부의 긴급대책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하며 상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부와 동원수산 측은 5일 새벽(한국시간) 피랍된 선박으로부터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진만기자 man21@

# “정말 안전한지... 빨리 좋은 소식 왔으면”



동원수산 소속 제628호 동원호의 조리사 이기만씨의 어머니 김도순씨가 아들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아들의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 피랍된 동원호 조리사 이기만씨 순천 자택 표정

“원양어선 선원으로 몇 년간 고생하면 고향에서 중국집을 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지난 4일 오후 인도양 소말리아 인근 공해상에서 정체불명의 괴한 단체에 납치된 동원수산 소속 제628호 동원호(361t)의 조리사 이기만(41)씨의 어머니 김도순(66·순천시 지분리)씨는 애타게 부르며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다.

김씨는 5일 새벽 아들이 탄 배가 피랍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밤을 동동 구르며 가슴 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원호 조리장으로 취직해 먼 바다로 나가는 아들이 항상 걱정인 판에 피랍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때문이다.

이날 하루 종일 TV 뉴스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던 어머니 김씨는 “큰 바다에서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선원 생활을 하는 아들이 못내 마

음에 걸렸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무사히 돌아와 준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까지 안전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지만 정말 안전한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지 애만 탄다”며 불안해했다.

이씨의 여동생(35)도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오빠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면서 “회사 측과 정부가 나서 납치범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순천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부산으로 가 중국집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운 뒤 3년 전부터 외항선박에서 조리사로 일을 해 왔으며, 지난해 고항집에서 5개월 쉬고 다시 배를 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 소말리아 해역은 어떤 곳

동원수산 소속 원양어선이 4일 해역에 의해 납치된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포함, 아프리카 해역은 동남아 주변과 함께 전세계 해적들의 주요 활동무대로 꼽힌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경우 1991년 이래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면서 해적들이 선원들의 몸값 등을 요구하는 선박 납치 행위를 종종 저질러온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해적 출몰 지역 가운데 하나다.

## 선박 납치·몸값 요구...해적들 무법천지

현재 해적 경보가 발령중인 소말리아 해역은 지난해 3월 이래 최소 23건의 해적 습격사건이 보고됐으며 같은 해 6월엔 식량난을 겪고 있는 소말리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의 구호 식량선박까지 해적에 의해 납치됐다 100여일만에 풀려나기까지 했다.

매년 5만척 이상의 각종 선박이 통행,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해협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도 해적들의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이 해협 부근에선 지난 2월 말 이후에만 최소 4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 공동순찰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방콕에 있는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태국 시위대가 탁신 총리의 사임 의사가 발표되자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태 과도총리에 치차이 부총리 지명

## 탁신 총리 “이제 쉬고 싶다”...필요면 복귀 가능성 반 탁신세력 “전격 사퇴 의미 뭘까” 회의적 반응

야권의 퇴진 압력에 굴복해 4일 사임한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의 뒤를 이어 내각을 이끌 총리 권한대행에 치차이 와나사타(59) 부총리 겸 법무장관이 5일 지명됐다.

탁신 총리는 이에 따라 내각 권한을 치차이 대행에 넘긴 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차기 총리를 지명할 때까지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수라폰 수브레윙리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하지만 탁신 총리는 필요하면 다시 총리에 복귀할 수 있다고 수라폰 대

변인은 덧붙였다.

탁신 총리는 집권 타이락타이당(타이에국당)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치차이 부총리가 총리직을 대신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나는 이제 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북부 지역 고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이곳 저곳 돌아다닐 예정이며 시간이 되면 치앙마이에 들러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이후 이슬람 세력의 반란이

계속돼 온 남부 지역 안보를 책임져 온 치차이 총리 대행 지명자는 탁신의 오랜 친구이다. 탁신과 치차이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으며, 귀국 뒤 경찰에 함께 투신하기도 했다.

치차이 대행은 의원 신분인 아니기 때문에 차기 총리 지명을 위한 의회가 열리면 곧바로 물러날 전망이다.

탁신의 전격적 퇴진 발표로 요동치던 태국 정국은 일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탁신이 진짜 정계를 떠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반대파들은 아직 탁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발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탁신의 퇴진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진만기자 man21@

## 모차르트는 궁핍하지 않았다 | 고소득 랭킹 상위 5%에 속해 낭비벽 심해 본 돈 ‘흥청망청’



돈에 쫓겨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빈에서 열리고 있는 ‘발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자료전’의 전시 자료들은 그가 당시 사회의 상류층으로서 유복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그가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1만 플로린으로, 오늘날 미화 4만2천달러에 해당한다. 18세기 빈

의 고소득 랭킹 상위 5%에 속했을 뿐 아니라 성공한 직업인이던 450플로린으로 풍족하게 살았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소득자였던 셈이다.

빈의 ‘무지크베리안’에 전시된 새로운 문서들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도박과 낭비벽이 심해 재산은 모조리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차르트가 항시 빛에 쫓겨 어렵게 살았다는 역사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연합뉴스

**당선확신!!**

신거점, 선거전략, 원동작전, 유세전략, TV연설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전화: 02-636-6533-4 / 017-603-657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부동산 관리사무소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전화: (061) 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전화: 02-220-4242 / 232-6262 / 624-6262